

VD
SPECIAL

벤처와
산학협력

벤처기업과
대학의

성공적인 만남

우수 산학협동 모델의 유형별 사례 분석

★ **맞춤형 인재육성** | 공장이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업계의 특성상 인재확보가 어려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례가 많다.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대학교육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기 R&D 방향까지 고려한 인재채용이 가능한 산학협동은 벤처기업의 구미를 자극한다. 반도체 패키징업체인 **하나마이크론(대표 최창호)**은 천안 백석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사내대학을 설립했다. 대기업의 사내대학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이 사내대학을 설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장비업체인 **에스티아이(대표 노승민)**는 두원공대 및 안성공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두원공대와는 인턴제도를 통해 현장실습 등을 진행하고 졸업 후 우선 채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안성공고에는 장학금을 지원해 우수인력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사회공헌 및 기증활동** | 벤처기업이 대학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재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도 산학협력의 좋은 사례이다. **NHN(대표 최휘영)**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술정보관 3층에 '네이버카페'를 오픈했다. NHN의 전액 출자로 이루어진 130여 평 규모의 '네이버카페'는 오프라인 인터넷 연구·학습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것은 인터넷 벤처기업이 대학에 사회공헌을 벌인 첫 사례로, 산학협력과 IT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는 최근 국민대학교에 웹애플리케이션(WAS)인 '제우스'를 기증하고 산학협력을 맺었다. 제우스는 컴퓨터공학 또는 전산 전공 학생들이 자바를 이용한 엔터프라이즈 응용프로그램 과정 실습을 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국민대는 이것을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 **공동연구과제 추진** | 기업의 생산기반과 대학의 기술이 만나면 신제품이라는 알찬 결실을 맺게 된다. 리눅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한글과컴퓨터(대표 백종진)**는 한신대학교와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육성 및 인재확보를 위한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한컴과 한신대학교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리눅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전문 교육과정 도입 등 리눅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모전을 실시하고 수상작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한컴의 기술을 접목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얼마 전 국산화에 성공한 플라즈마 식각 제어 장비의 경우, 산학협력으로 개발된 신기술에 속한다. **나노텍(대표 차동호)**과 산업기술대학교가 손을 잡은 결과로, 이 장비는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여서 국산화의 의미가 남다르다.

벤처기업의 끊이지 않는 화두는 관련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문제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야 할 때다. 인재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꼽히는 산학협력 실천 사례를 통해 산학협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산학협력과 관련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정책도 함께 살펴보자.

유용한 정책을 알면, 산학협력의 길이 보인다



하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421억원)
- 대학 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33억원)
- 1사 1교수 전담 기술·경영 자문제도의 지속적인 확산
-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54억원)
- 지방청 시험연구장비의 현대화 및 공동활용 촉진(40억원)
- 연구 장비·인력 종합시스템(TRIN) 운영의 내실화

둘. 창업보육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 보육역량에 따른 지원 차등화 및 입주기업 지원강화
- 부처별 창업보육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되, 연계지원체계 구축 및 업종·지역별 특화 운영 확대
- 매년 '기술창업패키지1000' 사업 추진
- 창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적 교육 시스템 운영
- 실험실 창업자에 대한 '경연능력향상교육' 실시

셋.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 공급기반 확충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 촉진
- 기업과 공업고등학교를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

- 맞춤형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37.5억원)
-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모 확대(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등 인력유입 여건 조성의 일환)
-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복지인프라 확충
-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에 전문연구요원 우대 배정
- 전문연구요원 의무중사 기간 단축(4년 → 3년)

넷. 산학협력 혁신역량 배양 및 우수모델 발굴·확산

- 대학·연구소 중심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 업종별 조합·대학·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이 결성하는 기술연구회 지원(60억원)
- 중소·벤처기업 이전기술개발 지원(59억원)
- '기술혁신대전' 개최
- 사업성과가 높은 대학 및 기업 발굴, 판로지원
- 산학협력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

* 문의 및 상담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산학협력과(042-481-4457)